



Monthly Customs Newsletter



[대표관세사 인사말]

올해는 무더운 여름이 빨리 찾아온 것 같습니다. 6월의 시작부터 햇빛이 굉장히 뜨겁네요. 무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웃는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에도 관세통상, FTA 등 다양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가 되실만한 기사만 간추려서 보내드리니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 6·25 등이 있어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주변의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세법인 청우 대표 관세사 봉용남



【 관세동향 】

▶ 우리나라의 對중 가공무역 수출 비중 “낮춰야 산다”

우리나라의 對중 가공무역 수출 비중은 대만, 일본 등 경쟁국보다 매우 높은 편인데, 이는 우리 對중 수출에 구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4월 27일 발표한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에도 우리나라의 對중 가공무역 수출 비중은 경쟁국에 비해 높아 對중 수출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임금 상승, 환경오염 등에 대응해 일련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를 잇따라 시행했고, 그 영향으로 전체 수입 중 가공무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38.5%에서 매년 떨어져 지난해엔 25.2%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해 대만은 對중 가공무역 수출 비중을 2007년 68.4%에서 지난해 50.1%로 18.2%p 낮췄고, 일본도 같은 기간 44.3%에서 34.0%로 10.3%p 떨어뜨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기간 54.1%에서 51.9%로 2.2%p 낮춘 데 그쳤다.

이처럼 지난 7년간 우리나라의 對중 가공무역 수출이 일본, 대만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전기기기의 가공무역 비중이 소폭 하락에 그쳤고, 광학기기와 무선통신기기는 오히려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 4,943억 달러 가운데 우리나라는 986억 달러로 20%를 차지했으며, 이어 대만이 762억 달러로 15.4%, 일본이 552억 달러로 11.2%의 점유율을 보였다.

중국이 내수 중심 성장, 신산업 육성, 무역 부가가치 향상 등을 추진하고 있어 가공무역 비중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가공무역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對중 수출에 구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큰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오세환 연구원은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수출상품 개발, 한·중 FTA 활용방안 마련, 전자상거래 채널을 활용한 중국 내수시장 공략 등 對중 수출 확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관세동향 】

▶ 갈수록 확산하는 신종 마약류 국제 공조로 막는다

최근 신종 마약류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적발이 크게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신종 마약류 가운데 합성대마는 값이 싸면서도 환각효과는 강력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 같은 신종 마약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외 마약단속기관뿐 아니라 외국 관련 기관과도 공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4월 24일 서울세관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 미국 마약단속청(DEA) 한국지부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신종 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신종 마약류 밀수동향, 국내외 신종 합성마약 적발사례, 신종 마약물질 분석정보, 임시마약류 지정현황 및 지정예정 물질 등 신종 마약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신종 마약류는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관세청의 적발실적도 2011년 63건(5kg), 2012년 83건(9.7kg), 2013년 104건(6.9kg), 2014년 168건(17.3kg)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합성대마는 대마초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 10배 이상의 강력한 환각효과를 유발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다른 신종 마약류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허브', '입욕제', 'legal high' 등 다양한 이름으로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일반인이 현혹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신종 마약류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주요 밀반입 경로인 국제우편물과 특송화물 등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X-ray) 검색, 탐지견 집중 투입, 우범 화물 정밀 개장검사 등 관세국경에서부터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세계관세기구(WCO)와 합동으로 펼치고 있는 '글로벌 신종마약 합동단속작전'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신종 마약류의 국제적 확산을 막고, 외국 관련 기관과의 공조도 더욱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는 신종 마약류 밀수와 국내 확산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신종 마약 단속정보교류 실무협의회'를 꾸준히 열고, 실질적인 단속정보를 교류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관세동향 】

▶ 한·일 수출전쟁, 미국에서도 계속된다

미국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경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5월 7일 발표한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일과 한·중 수출경합 비교' 보고서에서, 미국시장에서의 한·일 수출경합도는 2010년 0.438에서 꾸준히 상승해 지난해 0.517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수출경합도는 수출상품 구조의 유사성을 계량화해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의 경쟁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해짐을 의미한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및 부품의 경합도가 최고치(0.782)를 기록한 가운데 기계류(0.548), 전기·전자제품(0.519)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의 경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의 수출경합도는 2010년 0.702에서 지난해 0.782로 0.08p 올라 경쟁이 심해졌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0.499 → 0.561), 기계류(0.440 → 0.548) 등의 경합도도 상승했다.

한편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군에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은 상승한 반면, 우리 점유율이 하락한 품목은 기어박스, 산업용 로봇, 반도체 디바이스 등이었다.

지난해 미국 수입시장에서 중국과의 수출경합도는 0.346을 기록하며, 201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휴대폰 및 부품(0.845), 조선(0.558), 전기·전자제품(0.505) 등에서 높은 경합관계를 보였다.

한편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올랐으나 우리 점유율은 떨어진 품목으로는 플라스틱제 판, 조명용 기기 부분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망용 전화기의 경우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10%대 초반으로 떨어진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80%에 달했다.

앞으로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중국의 품질경쟁력 향상에 따른 추격도 거세져 미국시장에서 한·일 및 한·중 수출경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심혜정 연구원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수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져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강화, 브랜드 이미지 구축, FTA 활용 제고 등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세동향 】

▶ 계속되는 수출 부진, 어떻게 극복하나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으로 꼽히던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출 부진은 일본,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현대경제연구원(HRI)은 최근 발표한 '수출 침체의 요인별 분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수출 변동 원인을 가격경쟁력과 수입수요 측면으로 나눠 살펴보고, 수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수출은 가격경쟁력을 나타내는 양국 간 환율 수준과 수입수요를 나타내는 상대국 경제성장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은 미국시장의 수입수요 확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對일 수출은 일본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수출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올 1/4분기 기준 158.3p로 고평가됐으며, 일본의 경제 부진이 계속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줄고 있다.

유럽시장은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최근 수출이 급감했다고 전했다. 유로화 대비 원화의 실질실효환율도 올 1/4분기 기준 120.9p로 장기평균인 108.7p보다 11.2% 높아 고평가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제회복세는 아직 미흡해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수요 역시 약한 상태다.

중국시장은 경제성장률 감속으로 수입수요가 위축돼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대 초반까지 하락했으며, 올해는 6%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가격경쟁력 측면은 對중 수출에 부정적이지 않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HRI는 "앞으로도 일본, 유럽, 중국으로의 수출 환경은 우리나라에 좋지 못할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맞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 대응방안으로는 국내 수출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이를 전체 수출경기 회복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엔화, 유로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에 따른 일본, 유럽으로의 수출 부진은 제품경쟁력 차원에서 기술, 품질, 문화 등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중국 경제의 수입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수출 제품을 중국의 내수시장 변화에 알맞은 상품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세동향 】

▶ 제조기업, 일자리 만들면 관세조사 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올해도 시행한다.

관세청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관세조사 유예 방안을 마련하고 5월 11일부터 4주간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수입금액이 1억 달러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이 올해 일정 규모 이상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으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수입금액이 5,0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인 업체는 전년대비 고용 비율이 10% 이상, 1,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인 업체는 5% 이상, 1,000만 달러 미만 업체는 4% 이상이면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비중 산정 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위해 15세부터 2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비율 산출 시 가중치를 줘 1명을 1.5명으로 계산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고객의 소리 > 일자리 창출 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관세청은 요건 확인 작업을 거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이와 별도로 '전년도 신설기업',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제조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1년간 관세조사를 받지 않는다.

다만 관세법 위반 및 체납 사실이 있으면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인 후에도 일자리 창출 진행률을 점검해 명백한 탈세 우려가 있거나 유예요건이 취소되면, 즉시 유예대상에서 배제한다.



[FTA 뉴스]

▶ **신흥국 중심 'FTA 2라운드' 개봉박두!**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전략적 FTA 추진'의 하나로 앞으로 추진할 FTA 정책 방향을 담은 '新FTA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 FTA 등 다섯 건의 FTA를 새로 타결하면서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 또는 선진국과의 FTA를 사실상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새로운 FTA 전략을 수립해야 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FTA 미체결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 이스라엘 등 3개국이며, 일본은 2004년 11월, 멕시코는 2008년 6월 협상을 중단한 상태로, 이스라엘과는 2010년 8월 공동연구를 끝냈다. 특히 중국, 일본 등 인접국도 최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동안 체결한 FTA로 구축한 FTA 플랫폼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번 추진 전략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메가(Mega) FTA에의 적극적인 대응, ▲이미 체결한 FTA 개선, ▲신흥 유망국시장을 겨냥한 신규 FTA 추진 등 3대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TPP·RCEP 등 메가 FTA에 적극적인 대응

메가 FTA는 3개국 이상이 참여해 양허 수준과 통상 규범 등을 제고하는 다자간 FTA로, 산업부는 미국, EU, 중국 등 3대 거대 경제권과의 양자 FTA 체결 이후 TPP, RCEP 등 메가 FTA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그동안 구축한 FTA 플랫폼을 토대로 지역경제통합의 핵심축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상황과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체결한 FTA 개선

ASEAN, 인도 등 활용도가 낮은 FTA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체결한 FTA 중에도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꾸준히 모색할 방침이다.

신흥 유망국 겨냥 신규 FTA 추진

앞으로 FTA 대상국은 GDP, 실행관세율, 인구 등 경제 지표와 상대국의 통상정책, 국제 분업 구조에서의 위치 및 국제정치 요인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에 따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과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신흥 유망국을 중심으로 신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업부는 협상 실익과 상호 협상 여건, 상대국 입장 등을 고려해 공동연구 추진 등 앞으로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FTA 뉴스]

▶ 한·터키 FTA 발효 2년 교역 늘고 흑자 폭도 커져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 폭도 더욱 커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FTA 발효 2년 차에 對터키 수출은 59억 7,000만 달러로 7.4% 증가한 반면, 수입은 6억 달러로 4.8% 감소해 무역수지는 53억 6,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발효 1년 차보다 흑자 폭이 9.0% 커졌다. 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터키 수입시장에서 8대 수입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25.8%)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FTA 혜택 및 비혜택 품목군별로 수출입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FTA 혜택품목군의 수출은 발효 1년 차에 40.1%로 급격히 늘어난 후 2년 차에는 5%대 성장세를 보였으며, 비혜택 품목군의 수출도 1년 차에 28%에서 2년 차에는 12.9%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FTA 혜택 품목군의 수입은 수입 비중이 35.3%에 달하는 석유가스 등 석유제품의 수입이 줄어 2년 연속 감소한 반면, 1년 차에 큰 폭으로 증가(220.1%)했던 비혜택 품목의 수입은 의약품과 아연광, 알루미늄 등 천연자원의 수입이 계속돼 2년 차에도 증가세(35.9%)를 이어갔다.

이어 품목별 수출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21.3%), 석유화학원료(82.5%), 원동기·펌프(35.5%)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합성수지(-2.1%), 자동차(-25.7%) 등은 감소했다. 수출 1위 품목이던 자동차는 관세인하(8.75% → 7%)에도 현대자동차의 터키 현지공장 증설에 따른 현지생산 증가 등으로 2년 연속 감소했으며, 자동차 부품은 터키 현지공장 증설에 따른 수요 확대와 관세인하 효과 등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다. 즉시 철폐로 수출이 대폭 증가했던 합성수지는 2년 차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對터키 수출 1위를 유지했다. 한편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를 적용하던 평판디스플레이는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해 對터키 2위 수출품목을 유지했다.

품목별 수입을 보면, 자동차 부품(0.5% → 32.3%)과 의류(6.9% → 13.8%)는 FTA 발효 이후 2년 연속 수입이 증가한 반면, 수입 비중이 큰 석유제품(-25.8% → -79.0%)은 장기구매 계약이 끝남에 따라 수입이 종료돼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FTA와 관계없이 무관세를 적용하던 혈액 분획물 등 의약품(41.8% → 133.9%)과 아연광(157.6% → 122.2%)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FTA 활용 주요 지표의 하나인 수출기업의 FTA 활용률은 발효 2년 차에 73.4%까지 증가해 미국(76.3%)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활용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1년 차엔 대기기업의 FTA 활용률이 72.3%로 중소기업의 67.7%보다 높았으나, 2년 차에는 중소기업 활용률이 73.7%로 대기기업 73.2%보다 0.5%p 높게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이 성공적으로 정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뉴스]

▶ 한·베트남 FTA, 유망한 수출품목은?

정부는 지난해 12월 타결한 한·베트남 FTA에 5월 5일 정식 서명했다. 기존 한·ASEAN FTA보다 개방수준을 높이고 원산지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우리의 對베트남 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5월 5일 발표한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자동차 부품, 섬유, 소비재의 수출이 유망할 것이며, 생산 단가가 중요한 차체의 부분품,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등의 자동차 부품(10~15%)과 부직포, 합성스테인플 섬유 직물(12%)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에 따라 전체적인 우리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밥솥(20%), 믹서기·녹즙기(25%) 등 생활가전과 부품시장을 개방해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소비재시장 진출 기회가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베트남 FTA는 관세철폐와 함께 상품양허의 핵심요소인 품목별 원산지기준(PSR)도 개선했다. 농수산물과 기계류는 수출 유망품목의 원산지기준을 완화하면서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워졌고, 베트남과의 무역이 활발한 섬유는 공정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증명방식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조건을 기존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해 소액 수출업체의 FTA 활용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제4대 투자대상국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베트남 현지 진출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아직 베트남의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해 자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對베트남 중간재 수출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앞으로 TPP, EU와의 FTA 타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으로 베트남을 생산 거점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도 늘 것으로 보여 일본, 미국 등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의 해외 소싱에도 FTA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연구원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이 18.3% 증가하면서 베트남은 우리의 제3대 수출 상대국으로 떠올랐다."며,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A 뉴스]

▶ FTA 사후검증 대응했다간 역대 추징금 물 수도

FTA를 통한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수출입물품 원산지 증명과 이에 따른 사후검증 사례가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2011년 업체 수 기준으로 84건에 불과하던 원산지 수출검증은 지난해(1~7월) 194건, 수입검증은 2011년 49건에서 같은 기간 386건으로 증가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올 5월 현재 우리나라는 49개국과 총 11건의 FTA를 발효 중이며, FTA 교역비중은 39.8%다.

FTA 원산지검증이란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해당 세관에서 확인하는 절차다. 검증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오류로 발급됐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를 비롯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 추징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다.

특혜관세의 수혜자가 수입업자이므로 원산지 검증 시 수출자는 소극적일 때가 많다. 수입업체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접촉을 통해 원산지검증 대응자료를 잘 준비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특히 EU, 칠레, 터키, 미국, EFTA 등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FTA는 사후검증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전자부품 중간소재를 프랑스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S社は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왔다. 올 4월 서울세관은 프랑스 관세청에 사후검증을 요청했는데, 프랑스로부터 수개월간 응답이 없자 S社は 특혜관세 적용 자격 박탈은 물론 5억여원을 추징당할 처지가 됐다. 관련 서류 회신 마감기한을 열흘 남겨두고 무협 브뤼셀 지부는 S社の 요청을 받아 프랑스 관세청 및 수출업체 소재지 지방세관 등의 해당 부서 실무담당자를 수소문했고, 프랑스 세관의 행정 착오로 S社の 공문 회신이 누락됐음을 파악했다. 곧장 프랑스 세관은 우리 세관에 원산지검증 내용을 회신했고, S社は 브뤼셀 지부의 현장 밀착지원 덕분에 5억여원의 관세 추징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무협 조חק희 국제협력실장은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검증과 이에 따른 수입자의 자료 요청에 대비해 수출자는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고, 수입자 또한 수출자가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거래 상대 수출·수입업체와 원활하게 소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검증 대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AEO 뉴스]

▶ **AEO 공인·FTA 활용 수출기업 금융지원 받는다**

성실무역업체(AEO) 공인과 FTA 활용 수출기업은 기업은행에서 좀 더 저렴한 금리의 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5월 6일 서울세관에서 기업은행과 AEO 공인 및 FTA 활용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기업은행이 AEO 공인과 FTA를 활용하는 기업 중 관세청이 추천한 수출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통상 금리에서 0.5~ 1.5%p 더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관세청은 그동안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을 위해 정부예산으로 상담 및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FTA 활용을 위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보급했으며 맞춤형 상담 등도 해왔다.

그러나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중소 수출기업은 AEO 공인과 FTA 활용을 위해 추가로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다소 줄임으로써 AEO 공인과 FTA 활용을 더욱 활성화해 우리 수출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객께 드리는 청우의 약속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약속
- ❖ 최고의 전문가 서비스 약속
- ❖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기억이익 실현 동참의 약속
- ❖ 변함없는 고객 관리와 기업 비밀유지 준수의 약속

Contact Us

- Tel. 032-744-8001 (代)
- Fax. 032-744-8006 (代)
- E-mail. newsletter@cwcustoms.co.kr